

Reactions



온라인 소식지 보기

2024

겨울 Winter

대한적십자사 소식지

vol.580

테마 톨보기

폭염과 한파가 무서운 사람들

적십자 이야기

대한민국 곳곳, 희망의 바람이 불어라

RC Report

무력충돌로 인한 자연파괴와 국제인도법

우리가 만드는 작은 기적

신나는 노래처럼 새 희망이 피어납니다

2025년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

2025년, 인도주의를 향한 여정 우리 함께 해나갑시다

날이 추워질수록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 힘겹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살피고, 취약계층을 향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올해도 대한적십자사는 수많은 위기의 현장에 달려가 아픔을 달래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화됐고, 11월에 폭설이 내리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대한적십자사는 집중호우, 폭염, 폭설 등 기후재난 위기에 맞서 긴급구호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 등 줄줄이 터진 대형화재 현장에 이재민 대피소 운영, 급식지원차량, 샤워차량 등을 급파했으며 구호물품 및 심리회복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 현장에도 대한적십자사는 함께했습니다. 무력충돌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방문해 국민의 성금으로 마련한 구급차를 전달했으며, 2023년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복구를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몽골 한파, 방글라데시 홍수 피해 지역 등을 긴급지원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구호기관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올해 대한적십자사는 창립 11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119 구조대처럼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119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뭉클해집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정치적 격변의 시기 등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하며 인도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며 전 세계 곳곳에 인도적 손길을 건네는, 세계 속의 적십자사로 발돋움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헌신과 노력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시대의 봉사 영웅들에게 예우를 갖추고자 취임 후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최초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정부 훈포장을 신설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인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적십자 가족 여러분,

겨울 추위를 잊을 만큼 봉사 현장을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함과 동시에 대한적십자사의 저력을 다시금 느낍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던 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함께해 나갑시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적십자 고유의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철수



CONTENTS

- | | |
|---|---|
| 04 미리보기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 18 당신의 응원으로 따뜻해질 오늘
시한부 엄마를 돌보는 서준이 |
| 06 테마 돋보기
폭염과 한파가 무서운 사람들 | 20 RC 사람들
공공기관 SNS는 재미없다?
적십자는 재밌다! |
| 08 적십자 이야기
대한민국 곳곳, 희망의 바람아 불어라 | 22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Story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하여
오토트리분 양봉수 대표 |
| 12 후원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언제나 네 곁에
'열여덟 어른'과 함께 걸어요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 24 함께하는 RC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을 향한 시간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식 |
| 14 RC Report
무력충돌로 인한
자연파괴와 국제인도법 | 26 RC 심포
인도주의,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됩니다 |
| 16 우리가 만드는 작은 기적
신나는 노래처럼 새 희망이 피어납니다
2025년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 | 28 김경일의 마음 처방전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 |
| | 30 RedCross News
지역별 적십자 소식 |
| | 40 나눔이 희망입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
| | 43 빨간우체통
독자 의견 및 편집실 이야기 |

RedCross media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선물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다들 '안녕'하셨는지요?
끼니는 거르지 않는지, 긴급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건 아닌지
대한적십자사는 항상 여러분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누군가의 막막한 삶에 닿는 작은 관심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추운 겨울, 취약계층 어르신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은 '사랑의 선물'을 전달합니다. 방한용품과 생활용품 11종이 담긴 사랑의 선물은 적십자 바자 수익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무서운 사람들

기록적인 폭염을 맞은 올여름, 11월부터 찾아온 한파. 기후변화로 에너지 빈곤층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에너지 복지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
과제와 방향을 함께 모색해 봅니다. 글 | 박광수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더워지고 추워질수록 더 커진 ‘에너지 불평등’

겨울이 오면 난방비를 걱정하는 가구가 많아집니다. 특히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렇습니
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가구 소득(가처분소득: 개인
소득 중 소비·저축을 할 수 있는 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가구 평균으로는 3.9%
이었지만, 소득이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는 18.5%나 됩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에
너지 빈곤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 통
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낮은 소득입니다.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것도 에너지 빈곤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택이라
면 단열이 잘되는 주택에 비해 똑같은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합
니다. 게다가 저소득 가구의 경우 등유나 LPG 등과 같은 연료로 난방하는 가구가 적지 않은데 이러
한 연료는 비싸서 원하는 만큼 소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경험했지만, 여름철 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에너지 빈곤 가구의 어려움
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은 겨울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한 에너



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도 부담되지만, 냉방기기가 없어 더위를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선
풍기로는 더위를 피하는데 한계가 있어 에어컨이 필요한데 저소득 취약 가구의 경우 에어컨 보급
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빈곤 가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
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냉난방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에 대한 영향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 겨울에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여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에너지 복지, 혜택 못 받는 취약계층 발굴해야

저소득 취약 가구가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
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 이용권을 사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 지역난방 공급사 등도 저소
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난방 요금 등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
든 지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취약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뒤지
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취약 가구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크게 악화되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크게 인상하고 요금 할인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대책으로 에너지 빈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필요한
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도 여전히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에너지
공단에 의하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인데 지원하지 않아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지원 한도를 제
대로 소비하지 못하는 가구도 많다고 합니다. 대상 가구에 노인가구나 소년소녀세대 등 에너지 지
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이러한 가구가 있다면 현재 지
원되고 있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러한 도움은 물질
이나 금전적 지원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도우미 필요한 내용(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은 인터넷에서
'에너지바우처'나 '전기 요금 할인' 등과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커 취약 가구일수록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
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가구에 대해 돌아보는 마음이 더욱 소중합니다. ●

대한민국 곳곳, 희망의 바람아 불어라

복지의 빈틈을 메우려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과 위기 앞에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은 더 큰 어려움에 놓이는데요.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

01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복지사각지대의 현실을 수면 위로 끄
집어냈습니다. 단독주택 지하에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2019년 봉천동 탈북 모자, 2022년 수원 세 모녀,
2024년 태안 일가족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계
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찾아 신속한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권을 지키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희망풍차' 지원 사업인데요. 전국 15개 지사 적십
자봉사원들이 주축이 되어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 마음을 돌보는 결연지원, 후원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산모 출산용품 지원, 아동·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만 희망풍차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가정, 사회적 약자 총 55만 명에게 275억 원을 지원했습
니다. 촘촘한 연결을 통해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십자가 함
께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긴급지원'

갑작스러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51억 원 👤 5,108명

정서적 돌봄 '결연지원'

독거노인·조손가정·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 등 관심이 필요한 세대와 결연을 맺고,
매달 밀반찬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정서적 돌봄까지 제공합니다.

₩ 37억 6,000만 원 👤 3만 3,571명

사회적 이슈 및 다양성에 따른 '맞춤지원'

후원기업의 특성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
취약계층 가구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지원을 진행합니다.

₩ 186억 5,000만 원 👤 51만 7,249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정한 이웃'

02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경기도 성남에서 진행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한 적십자봉사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가능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빌라 반지하.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숨쉬기도 버거운 집안 내부는 형광등이 고장나 어두컴컴했고, 곳곳에 먼지와 시커먼 곰팡이가 뒤범벅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75세 아버지와 39세, 37세 지적장애가 있는 두 아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세대는 대한적십자사 성남중앙봉사회 박시현 회장이 매주 수요일 반찬 나눔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삼부자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박 회장은 도움의 손길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수소문한 끝에 성남시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도배, 장판 공사를 비롯하여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이 추진됐습니다. 30일의 긴 여정을 거쳐 곰팡이 핀 벽지와 오염된 장판, 낡은 구조물은 사라지고 이곳은 안전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별히 시공 작업은 재능기부로 이뤄졌는데요. 실내인테리어 전문회사인 ㈜디벨스랩의 임종화 대표는 “저희가 전체 공사를 맡아 진행했지만 좋은 취지로 함께해준 협력업체들 덕분에 철거부터 사시, 장판, 도배, 바닥 난방, 환기장치 설치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과거의 불편함은 뒤로하고 이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중부봉사관 최민규 관장은 “이번 사례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적십자와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 뜻을 모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뜻깊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INTERVIEW

따뜻한 관심이 만든 기적!

매주 수요일마다 반찬을 전달하기 위해 어르신 댁을 찾았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고민과 걱정에 잠 못 이뤘던 날이 많았어요. 이들을 돕고 싶어 방법을 찾다 성남시청에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했고 중원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등과도 연락이 닿아 어르신 댁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찬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웃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수리를 앞두고 연신 고맙다며 밝게 웃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향후 장애가 있는 두 아들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십자봉사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바꾸는 일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



대한적십자사
성남중앙봉사회 박시현 회장



언제나 네 곁에 ‘열여덟 어른’과 함께 걸어요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 연장 시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매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2,000명.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적, 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적십자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같이 걸어요 ‘자립시, 꽃길로’

대한적십자사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자립시, 꽃길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한 달 기록 챌린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4개월간 총 12차례에 달하는 △정서 △생활교육 △경험확장을 위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은 2025년 2월 대한적십자사의 국제협력사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해외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 예산 **총 5억 5,000만 원**

주요 재원 **2023년 레드크로스 갈라 모금액(2억 9,000만 원), 배우 김선호 씨 후원(1억 원) 등**



경제 지원 	‘나 프로젝트’ •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작은 성공을 경험 • 프로젝트 완수자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 231명	정서 지원 	한 달 기록 챌린지 • 자기 자신을 알아보고 다양한 질문에 한 달간 답변을 기록 • 본인 감정과 자아를 돌아보는 기회를 통해 자존감 향상 243명
생활 교육 	정리 정돈 프로그램 6명 요리 프로그램 14명	건강 지원 	건강검진 지원 53명
기업 탐방 	호반그룹 대한전선 공장 방문 12명	해외봉사활동 	자립준비청년과 봉사원이 함께하는 해외봉사활동 24명 (2025년 2월 예정)

든든한 보금자리 마련 ‘유스타트 주택청약종합저축’

대한적십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리은행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복지를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과 2년간 월 2만 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 예산 **총 5억 1,000만 원**

사업 기간 **2023년 3월 ~ 2025년 6월**

지원 내용 (2024년 10월 기준) **지원 인원 999명** **지원 금액 1억 1,742만 원**

무력충돌로 인한 자연파괴와 국제인도법

제43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무력충돌이 장기화되면서 환경 파괴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국제인도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시(戰時)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제인도법의 현안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쟁이 곧 ‘환경 파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무력충돌은 무고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식물은 멸종 위기에 몰렸고, 주요 산업지대의 포격으로 유독가스와 중금속이 대량 유출돼 대기, 토양, 수질 등이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과 암 발병 위험 등이 높아졌고,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의 후유증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오래 남아 인류를 위협합니다.

지난 11월 15일, 대한적십자사는 대한국제법학회,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함께 전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43회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 부상자,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네바협약을 위시한 국제법 체계를 말합니다.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196개국은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국제인도법을 보급할 의무가 있고 각국 적십자사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회사에서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지난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4차 국제적십자회의에 참여했는데 화두는 단연 ‘무력충돌’이었다”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5개의 결의사항 중 첫 번째는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는 보편적 문화구축’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그는 “무력충돌은 자연환경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인으로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제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명백한 보호 대상 ‘자연 환경’

이번 세미나는 ‘전시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세션의 발제를 맡은 육군사관학교 이상재 교수는 “국제법적 틀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범을 제공하고 있지만, 신기술 무기체계의 등장 등 여전히 규제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신기술 무기의 경우 개발 단계부터 전시 환경보호 규범을 담보할 시스템을 만드는 등 환경에 미칠 수 있는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시스템 구비가 시급하다”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간사이대 권남희 교수는 유엔 국제법위원회(UNILC)가 2022년 유엔 총회에 보고한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원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 규범의 논의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이 원칙은 각 국가에 전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권 교수는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무력충돌 시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을 체계화하고 성문화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의 발제를 맡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연구원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는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친 중대한 환경 파괴를 전쟁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생태살해(Ecocide, 전시에 자연환경을 의도적으로 대량 파괴하는 행위)를 로마규정상 제5번째 국제범죄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최신 동향을 전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하고 절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효성 있는 법체제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범죄, 관할범죄의 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ICC의 최고규범. ICC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됐다.

2025년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 신나는 노래처럼 새 희망이 피어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은 국민 모금인 ‘적십자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하고, 취약계층을 살피는 일에 쓰이는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긍정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장민호·정동원 홍보대사

선한 영향력,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과 말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인데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들의 기부는 나비 효과가 되어 팬덤(유명인, 특정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무리)의 기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의 대표 주자인 가수 장민호, 정동원이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나란히 위촉됐습니다.

지난 11월 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는 두 홍보대사의 위촉식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위촉식에서 장민호 홍보대사는 “인도주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적십자와 함께 저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고, 정동원 홍보대사는 “홍보대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홍보대사는 첫 활동으로 ‘2025년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의 가장 큰 자원인 적십자회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모금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두 홍보대사는 신규 앨범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재능기부로 사진 촬영 등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는데요. 장민호, 정동원 홍보대사가 적십자 구호요원으로 분한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 포스터는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구호활동을 전개하며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적십자의 모습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시절, 독립군을 지원하고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모금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모금 운동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적십자회비는 모든 인도주의 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매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외부 회계법인 감사 및 내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으며 회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습니다.

2025년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은 ‘적십자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나눔으로 재난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집중모금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모금 목표액은 600억 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모금이 이뤄지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계좌이체, ATM, 적십자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은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힘듦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장민호, 정동원 홍보대사
영상으로 만나기



적십자회비 모금
동참하기



시한부 엄마를 돌보는 서준이

서준이네는 엄마와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2년 전, 엄마 경희씨가 갑작스레 골수암 진단을 받으면서 서준이는 가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13살밖에 안 된 어린 서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혹여나 엄마와 서준이는 서로의 울음을 들킬까 봐 방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삼킵니다. (본 사연의 대상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서준이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어요

식당 조리와 청소일을 하며 서준이를 돌보던 엄마 경희씨.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찾아간 병원에서 엄마는 골수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함께여서 행복했던 서준이네 일상은 그렇게 깨져버렸습니다. 갑작스레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기에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다 보니 1,500만 원의 빚까지 생기고 말았는데요. 엄마는 서준이를 생각하면 일을 멈출 수 없지만 이미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려 결국 일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서준이가 제 병을 알고 난 뒤로 밥을 잘 안 챙겨 먹더라고요.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면 서준이는 부모 없는 아이가 돼요.

내가 평생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후원 그 후



2024 < RedCross > 가을호에 실린 ‘암으로 멈춰버린 별이의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별이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4,203만 1,067원이 모아졌고, 별이의 치료비와 시급한 생계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별이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후원금 약 2,203만 원은 별이와 같이 위기에 놓인 아이들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준이네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사는 컵라면으로 대신하고 공과금과 집 월세를 내고 남은 돈을 아끼고 모아 엄마의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망설입니다.

“돈이 없어서 엄마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언제나 자신보다 엄마가 먼저인 서준이는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렸습니다.

엄마 곁이 가장 좋아요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엄마 곁에 있는 게 좋은 서준이. ‘엄마, 한 번만 안아줘’, ‘엄마, 등 긁어줘’. 엄마 앞에서는 어리광을 부리는 영락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서준이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작은 몸집에 비해 너무나 가혹합니다. 학교를 마치면 서준이는 친구들을 지나쳐 곧장 집으로 달려옵니다. 거동이 힘든 엄마를 대신해 밥상을 차리고, 엄마의 약을 먹이는 등 집안일은 서준이의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학업을 이어 가는 것도 힘겹습니다.

서준이와 같은 가족돌봄청년 10명 중 6명은 가족을 돌보며 자신의 진로나 학업 등을 이어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래 청년들과 비교할 때, 우울 수준은 63.2%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데요. 생애 초기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그 시기가 지난 뒤에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서준이를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엄마는 자꾸 눈물만 납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도 한 번 못 데리고 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 평범한 일들을 서준이에게 해주고 싶어요.”

시한부를 사는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서준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소원입니다. 올해 겨울은 암 진단을 받고 맞이하는 두 번째 겨울입니다. 앞으로 서준이와 엄마가 함께 맞이하는 겨울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엄마 경희씨와 서준이가 평생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



후원 참여 방법

계좌 후원 기업은행 148-013356-01-151

(예금주: 대한적십자사, 입금자명: 성명+서준이)

홈페이지 후원 www.redcross.or.kr 접속 후 참여

후원 문의 1577-8179 (유료, 대한적십자사 후원 콜센터)



서준이 후원하기

* 보내주신 후원금은 서준이네에 꼭 필요한 의료비, 생계비, 서준이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비에 사용됩니다. 이후 모인 후원금은 서준이와 같이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유튜브
보러 가기

공공기관 SNS는 재미없다? 적십자는 재밌다!

대한적십자사 홍보팀 윤소희 대리·이찬효 영상 제작 PD



“이 영상이 대한적십자사 공식 채널에 있다고요?” 유명 아이돌의 댄스를 따라 추고,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명장면을 패러디한 영상이 적십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홍보 채널은 딱딱하고 지루할 거라는 편견을 시원하게 깨버렸는데요. 이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자나깨나 홍보 콘텐츠 생각뿐인 숨은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보고 싶은 콘텐츠, 적십자에 스며들었다

공공기관 SNS계의 떠오르는 샛별, 대한적십자사 홍보 채널을 아주 ‘핫’하게 만든 두 사람입니다. 바로 대한적십자사 홍보팀 윤소희 대리와 이찬효 영상 제작 PD인데요. 이들은 공공기관 특유의 틀을 깨고 친근하고 유쾌한 콘텐츠로 대중과의 소통을 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공식 S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올해 가장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플랫폼은 단연 유튜브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솔직하면서도 B급 감성의 재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적십자와 관련된 메시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사업이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층에게 어렵고 무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인도주의’라는 단어, 솔직히 어렵잖아요? 적십자 사업을 쉽게 풀어내는 게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숏폼 콘텐츠를 활용해서 밈(Meme, 온라인 유행 콘텐츠),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SNS 콘텐츠의 변신은 윤소희 대리 개인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적십자 대표 유튜버로서 활동하게 된 것인데요.

“PD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작 예산 절감을 위한 결정이었더라고요. 찍은 영상이 쌓여가면서 덕분에 때아닌 연기력만 늘고 있어요. 배우로 전향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웃음). 간혹 동료들, 봉사원분들이 알아보시고 잘 보고 있다고, 인사해 주시는데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요즘은 은근히 즐기고 있어요.”

딱딱한 틀 깨고 ‘재미·센스·의미’ 잡았다

재미와 정보를 버무린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찬효 PD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SNS 콘텐츠는 이탈율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시청자가 이 영상을 볼지, 말지는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첫 장면에서 이목을 집중시켜 왜 이 영상을 계속해서 봐야 하는지 빠르게 알려줘야 합니다. 또 짧은 영상이지만 클리셰(예측 가능한 진부한 설정)를 깨는 반전 스토리를 넣어서 명확하게 적십자 활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십자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10월 탄생한 대한적십자사의 신규 캐릭터 ‘세호(Saving Hopes)’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기 독수리 세호는 귀여운 외모로 벌써부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세호가 등장하는 영상이 업로드되면 반응부터 다르더라고요.”

세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며 윤소희 대리는 공공기관 캐릭터도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한적십자사 SNS 채널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적십자의 인지도 향상과 미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미래 잠재 고객은 앞으로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해 주실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적십자가 SNS 채널을 통로 삼아 친근하게 다가간다면 누구나 적십자 활동을 이해하고, 언젠가 나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찬 포부도 남겼습니다.

“공공기관 SNS의 선구자라 하면 다들 충주시청의 ‘충주맨’을 떠올리실 텐데요. 적십자 채널이 충주맨을 넘어서는 채널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잖아요. 충주맨이 오래도록 지켜왔던 홍보계의 왕좌 탈환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 SNS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255번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오토트리뷴 양봉수 대표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하여

자동차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동차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기자가 됐고,
급기야 자동차 소식을 전하는 전문매체를
창간하기에 이르렀다는 오토트리뷴 양봉수 대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진 않더라도
힘닿는 대로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장서는 미디어

오토트리뷴은 2013년 창립 이후 업계에서 독보적 입지를 다져 온 자동차 전문매체입니다. 2016년 네이버 포스트에서 구독자수 70만 명을 넘어서며 자동차 부문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콘텐츠 운영 대행을 맡으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체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장 취재로 보완하며 전문지에서 종합지로 콘텐츠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토트리뷴은 다른 온라인 매체와 달리 브랜드의 광고 수익이 아닌, 자체 콘텐츠 품질과 함께 트래픽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구글 애드센스 등의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영업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고를 받는 미디어가 아니라 업계 발전을 위해 후원을 하는 미디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토트리뷴의 사무실 벽면에 걸린 게시판에는 회사의 4대 가치를 담은 신문 1면 디자인의 포스터가 부착돼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고, 각 구성원에게 최고의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책임을 다해 구성원들의 성장과 목표 달성에 공헌한다는 내용의 문구와 더불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유튜브나 뉴스 콘텐츠를 통해 세상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세대를 위해 부정적인 이슈만 다룰 게 아니라 훈훈한 소식을 전하며 우리 사회가 살 만한 세상이란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활력 더하는 자동차 문화 만들고파

오토트리뷴은 지난 4월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의 ESG 실천 기업 정기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하며 적십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정기후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의 수혜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기업 사회공헌 캠페인’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에는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 뉴스 콘텐츠를 소비해 주시는 독자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후원단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한적십자사가 가장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인연을 맺

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성장하는 단계에 있고 그다지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반대했다면 어려웠을 일인데 모든 직원들이 기부를 응원한 덕분에 이렇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기부는 하면 할수록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양봉수 대표의 말처럼 나눔 행위에 대한 그의 철학은 확고합니다.

“물은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물을 가둬 놓으면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물이 맑게 유지되려면 항상 흘러야 하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곳으로 돈이 흘러가야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동차 전문 사진기자로 업을 시작했고 전문매체를 창간하기에 이르렀을 만큼 자동차에 진심인 양봉수 대표는 자동차를 매개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이동 수단에서 문화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요. 강원도 원주라는 지역적 한계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에 좋은 입지거든요. 10년쯤 뒤에는 원주에서 자동차를 통해 뭔가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온 119년. 일상을 위협하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일선에서
구석구석 희망의 빛을 밝혀온 적십자의 시간입니다. 창립 119주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의 구성원이
한데 모여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다시금 모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을 향한 시간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식

창립 이후 최초로 이뤄진 ‘정부 포상’

1905년 고종황제 칙령(제47호)으로 탄생한 대한적십자사. 매년 10월 27일은 대한적십자사의 창립기념일입니다. 올해는 창립 119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명예부회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외교사절과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포상을 받는 수상자와 가족, 적십자 임직원과 유관인사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정채영 부회장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을 시작으로 적십자 활동 영상 상영, 기념사, 축하, 시상식,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창립 119주년 만에 인도주의 활동 유공에 대한 첫 정부 포상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포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직접 발로 뛰며 봉사원 포상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김철수



(왼쪽)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임영자 봉사원.
(위쪽부터) 승산나눔재단 김영자 이사장(목련장),
황의선 헌혈자(석류장)와 국민포장을 받은 홍준길, 임규래 봉사원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700~800번 이상 헌혈에 참여한 다회 헌혈자, 3대가 함께 10만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적십자봉사원,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기부자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역사상 최초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정부의 이 포상이 대한적십자사의 위상과 적십자 가족들의 자부심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묵묵히 봉사해 온 국내외 43,850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날 기념식을 통해 41명의 대표 수상자가 상을 받았습니다. 43년간 5만 8천시간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임영자 적십자봉사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37년간 기부와 봉사를 이어 오며 누적 기부액이 43억 원에 달하는 승산나눔재단 김영자 이사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1973년부터 749회 헌혈로 국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한 황의선 헌혈자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실현하는 ‘함께의 가치’

창립 이래 적십자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습니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정치적 격변의 시기를 비롯하여 재난과 위기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는 중남부 지역 수해,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 달려가 이재민을 돌봤습니다. 적십자가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나라 밖도 물론입니다. 무력충돌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구급차를 전달했으며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의 피해복구를 돕고 몽골,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에서 긴급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재난이 반복되고,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적십자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적십자사는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누구나 진료받을 수 있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혈액 수급 관리를 위해 헌혈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불어 치매환자 돌봄과 자살 예방,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등 우리 주변 이웃을 살피는 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도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달려온 지난 119년의 궤적을 거울삼아 지속가능한 인도주의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인도주의,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됩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레드크로스 갈라,
'갈라 10년, 희망의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가족을 돌봐야 하기에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2015
병원·거리·학교에서
만난 아이들
(모금액 7억6천만원)



2024 RED CROSS GALA

갈라 10년,
희망의 빛으로
피어나다

+ 대한적십자사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



외로움은 질병이다

“외로움,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저서 《고립의 시대》에서 외로움을 ‘몸과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기는 질병’으로 정의합니다. 고독함은 만성적 염증과 같아서 몸의 면역력을 약화하고 회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심리학, 사회 및 경제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가까이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라는 주장을 하며 ‘질병’으로 확실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에는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처럼 외로움을 국가 차원에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은 다른 질병이나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만성적인 외로움은 뇌의 구조까지도 변화시켜 면역체계 약화는 물론이고 치매나 뇌졸중 등 다른 뇌 관련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일반적인 스트레스와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타인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외로움’으로, 만나기 싫은 타인을 피하지 못하는 고통을 ‘스트레스’로 구분합니다.

이토록 심각한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절묘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국내 독자에게도 잘 알려진 책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의 저자인 플로리다 주립 대학의 토머스 조이너(Thomas Joiner) 교수와 그의 제자인 멜라니 홈(Melanie Hom) 박사 등이 대표로 참여한 메타 분석 연구입니다.²⁾ 메타 분석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연구된 많은 수의 기존 연구 결과를 계량적으로 종합해 고찰하는 연구 방법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³⁾

‘외로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외로움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글 |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내 결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라

연구진은 수면 및 우울감 관련 연구 84개를 취합해 20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에 대한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메타 분석 결과, 첫 번째 결론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수록 외로움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악몽보다는 불면증 정도가 더 강한 것이 외로움의 크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⁴⁾

그런데 조이너 교수의 연구가 빛을 발한 것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놓치지 않고 분석에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감사하고, 소소하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수록 수면에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분명한 인과관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외로움의 양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외롭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2023년 아카데미상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작인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작품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등장합니다. 사람도 아닌 말이 소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네 곁에 있는 사랑하는 것들에 집중해.” ●

1)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0061300009>

2) Hom, M.A., Chu, C., Rogers, M.L., & Joiner, T.E. (2020).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problems and loneliness.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8(5), 799-824.

3) 같은 이유로 연구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분야에 정통한 연구자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다.

4) 악몽과 외로움과의 상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결과는 활기찬 삶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혹 겪는 일반적 현상이 악몽임을 의미한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대표 인지심리학자로서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해 연구한다.

저서로 <마음의 지혜>,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 <적정한 삶> 등이 있다.



본사

‘장민호·정동원’ 홍보대사 위촉, 적십자 활동 알린다

<미스터트롯>에서 찰떡궁합을 선보였던 파트너 장민호, 정동원이 11월 6일 홍보대사로 나란히 위촉됐다. 앞으로 장민호, 정동원 홍보대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홍보물 촬영, 봉사원 격려 활동, 나눔문화 확산 등에 앞장서게 된다.



서울지사

임영자 봉사원,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43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58,000시간 이상을 봉사로 헌신한 임영자 봉사원이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 공로로 첫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임영자 적십자봉사원은 “봉사는 기쁘다”라며,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봉사하며 살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임영자 봉사원은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지사

충청북도협의회, 전국구호급식요리경연대회 ‘대상’ 수상

봉사회 충청북도협의회는 10월 17일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전국구호급식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전국 15개 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영동지구협의회가 봉사회 충청북도협의회를 대표해 대회에 참가했으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청주에서 처음 개최한 구호급식요리경연대회는 재난현장 등 구호급식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이다.



전북지사

봉사원 노고 격려 ‘적십자봉사원 대회’ 개최

전북지사는 10월 15일 남원시 춘향골 체육공원 체육관에서 ‘2024년 적십자봉사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적십자봉사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적십자봉사원 1,000여 명이 참석해 봉사원 비전 선포를 하며 앞으로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최경식 남원시장, 대한적십자사 정채영 부회장,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등이 참석하여 봉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구지사

생명을 지키는 4분의 기적 ‘전국 심폐소생술 대회’

대구지사는 11월 9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2024년 전국 심폐소생술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기존 초·중·고등부에서 육군 장병 부문까지 참가자를 확대했다. 대회는 성인·소아·영아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에 대한 실기 시연 심사로 이뤄졌으며 전문가의 심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했다. 영예의 대상은 초등부 군산수송초등학교, 중등부 군산중앙중학교, 고등부 대구보건고등학교, 육군 장병부 37사단 기동대대가 수상했다.



인천지사

베트남적십자사 호찌민지사와 인도주의 MOU 체결

인천지사와 베트남적십자사 호찌민지사는 지난 10월, 지사 간 인도주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인천지사 대표단이 호찌민지사를 방문해 상호 격년제로 초청 및 방문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 발생한 태풍 야기 피해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인천지사 조의영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및 국가 간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전남
지사

중대형 재난 대비 3권역 재난구호종합훈련 실시

광주·전남지사는 10월 31일 3권역(광주·전남, 대전·세종, 충남, 전북, 제주) 재난구호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재난 발생시 적십자와 행정기관의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지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총 150명이 참여했다. 화재와 붕괴 등 복합 재난에 따른 대규모 이재민 발생을 가정하여 구호, 보건의료, 재난 심리 지원 등 재난구호 대비태세와 기관별 재난현장 주요 역할을 점검했다.



제주지사

제주지사 신사옥 이전 기금 모금 캠페인 론칭

제주지사는 10월 24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신사옥 이전 기금 모금 캠페인 론칭식을 개최했다. 모금 캠페인은 제주지사 신사옥 이전과 대한적십자사 제2 인재개발원 유치를 계기로 개최됐으며, 모금된 성금은 신사옥 이전 기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지사 정태근 회장은 “신사옥을 통해 제주도 내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이 한 단계 도약하고, 제2 인재개발원이 적십자 가족을 위한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캠페인 참여를 당부했다.



가족돌봄청년의 꿈 응원 ‘2024 레드크로스 갈라’

대한적십자사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원을 위한 ‘2024 레드크로스 갈라’를 11월 15일에 개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갈라는 적십자의 대표적인 연말 자선 모금 행사로, 가족돌봄청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했다. 이날 홍보대사 안재욱과 정일우, 사회협력 기관 관계자 및 적십자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아너스기업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브레드이발소,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위촉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국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가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대한적십자사는 10월 11일 브레드이발소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브레드이발소와 협업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적십자 캐릭터 ‘세호(Saving Hopes)’를 공개했다. 브레드이발소 정지환 대표는 “어렸을 때 앙리 뒤낭 일대기를 읽으면서 적십자를 알게 됐는데, 요즘은 영상이나 SNS를 통해 적십자를 접하는 게 익숙한 시대”라며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잘 알리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연말을 더 따뜻하게, 2024 사랑의 선물 제작

대한적십자사는 11월 20일 서울사무소에서 ‘2024 사랑의 선물’ 제작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주한 외교대사부인을 비롯해 국무위원과 차관 부인,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사랑의 선물은 취약계층 어르신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방한용품과 생활용품 등 11종으로 구성했다. 향후 적십자와 결연을 맺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 총 3,0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아동·청소년 2,000가구에는 온누리상품권(3만 원권) 2,000매를 전달할 예정이다.



차별없는 생명보호활동 앞장 ‘동물사랑 천사기업’ 선정

부산지사는 농협목우촌과 함께 유기동물을 위해 ‘부산시 동물사랑 나눔뱅크’에 사료 8,400kg을 기부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부산지사는 10월 5일 개최된 반려동물 문화축제 ‘위드펫스타’에서 부산시로부터 ‘2024년 동물사랑 천사기업’으로 선정되어 명패를 전달받았다. 부산지사는 유기동물보호소 봉사활동과 동물보호를 위한 모금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차별없는 생명보호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에 부산지사 총력 대응

짧은 시간 동안 부산지역에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 역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9월 21일, 서구 부민동을 비롯한 4개동의 이재민 구호를 위해 부산지사는 즉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부산지사 직원과 봉사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긴급구호세트와 비상식량세트 135개를 전달했다. 또한 구호품 현황을 점검하고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및 시·구·군 재난안전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했다.



치매예방 노인 건강 체조 지도자과정 운영

부산지사는 적십자봉사원의 치매예방활동 전문성 강화와 노인 건강 체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15일간 총 5회, 15시간 과정으로 치매예방 노인 건강 체조 지도자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에는 20명의 봉사원이 참여했으며, 노인에 대한 이해, 자가돌봄, 신나는 노래에 맞춘 스트레칭 및 신체활동, 치매예방활동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지도자과정을 이수한 이들은 부산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제이텍트코리아, ESG 환경 캠페인 동참

제이텍트코리아가 서울지사의 ESG 환경 캠페인에 동참했다. 제이텍트코리아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이끼불을 만드는 ESG 초록행성 지구별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제이텍트코리아 임직원들이 제작한 이끼불은 적십자봉사원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한편 제이텍트코리아는 베어링과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수출하는 업체이다.



한국수출입은행-경동나비엔, 김장김치 먹고 힘내세요

한국수출입은행과 경동나비엔 임직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에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직접 김장김치를 담고 포장 작업을 했으며, 이날 만든 김장김치는 적십자 봉사원을 통해 결연세대에 전달됐다. 서울지사는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올겨울 취약계층 6,372세대에 김치 60여 톤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장김치 전달과 연계해 정서지원과 고독사 예방,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의료기관 연결과 같은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한파를 녹이는 따뜻한 연탄 나눔

아직 연탄을 겨울철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나섰다. 고려아연 임직원들은 12월 한 달 동안 연탄 1만 4,000장을 서울 노원구 희망촌 주민 70세대에 전달했다. 고려아연의 후원으로 가구당 연탄 200장과 백미 10kg이 제공됐으며 임직원들은 직접 연탄을 나르며 한파를 녹이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고려아연은 서울지사와 밀반찬 나눔 사업, 겨울 김장 나눔활동, 혹서기·혹한기 에너지 세이프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가수에 그 팬’ 장민호 팬클럽, 이웃돕기 성금 기부

가수 장민호의 대구·경북 팬클럽 ‘대경후원 민호특공대’는 장민호의 생일(9.11)과 데뷔 27주년을 기념하며, 9월 11일 대구지사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대경후원 민호특공대는 2021년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기탁, 2022년 울진 산불 및 충청 수해지역 구호성금, 2023년 희망나눔 성금 등 선한 기부로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시민 참여형 제빵 봉사활동 전개

대구지사는 봉사자의 저변 확대와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서부봉사관에서 ‘시민 참여형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봉사 참여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5,000원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봉사활동 확인서(4시간)도 발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시민 60여 명이 제빵 봉사를 통해 나눔의 즐거움, 봉사의 뿌듯함을 느꼈다.



‘담배꽂초 줍는 대학적십자 히어로’ 봉사활동 실시

대구지사 대학RCY 회원 23명이 9월 9일 ‘담대히’ 플로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담대히’는 ‘담배꽂초 줍는 대학적십자 히어로’의 줄임말로, 빗물받이로 흘러 들어가 배수 문제를 일으키는 담배꽂초 등의 쓰레기를 주워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호우 피해를 대비하는 프로그램이다. 플로깅 장소는 대구 중구 북성로 골목부터 달성동에 위치한 대구지사까지 약 3.5km 구간으로, 대학RCY 회원들은 골목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를 줍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인천지사



인천 RCY, ‘사랑의 연탄’으로 희망의 불씨 지펴

인천지사 초중고 단원과 대학RCY 회원 400여 명이 11월 2일에 모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단원들은 부평구와 서구, 미추홀구 등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계신 에너지 취약계층 35세대에 총 1만 5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 행사 기금은 인천RCY위원회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으며, 몇몇 위원들은 직접 연탄 봉사에 참가하며 기부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다.



어르신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인천지사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인천 시민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어르신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상황별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응급상황 신고법을 기본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교육 참가자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라 유익했다”라며 “오늘 배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사랑 듬뿍 담은 김장김치 나눔

인천지사 적십자봉사원들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적십자봉사원들은 관내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380세대에 직접 방문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봉사원은 “추운 날씨지만 함께 모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를 만들고 포장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세종지사



지속가능한 환경 위해 멸종위기종 복원 활동 펼쳐

대전·세종지사는 10월 11일, 현대바이오랜드와 함께 대전 노루벌적십자생태원에서 멸종위기 야생 식물 복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서는 노랑붓꽃, 단양쑥부쟁이, 제비동자꽃 등 멸종위기 식물 5종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인공 식재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멸종위기종 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대전·세종지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청소년 인도주의 트레일 프로젝트 실시

대전·세종지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적십자 인도주의 트레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나은행의 후원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적십자 인도주의와 역사유적지를 탐방하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학생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학생들은 전쟁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을 방문해 역사를 체험하고 적십자 의료지원과 대한적십자회 설립 의의 등을 배웠다.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종합훈련 실시

대전·세종지사는 10월 30일 ‘기후위기와 자원봉사’를 주제로 2024년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적십자봉사원, 재난안전자원봉사네트워크 소속 단체 회원, 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대전·세종지사는 매년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역량을 높이고 있다.

울산지사



안전 문화 보급을 위한 ‘제22회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울산지사와 울산광역시시는 10월 12일, 울산문수체육관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안전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제22회 심폐소생술(CPR)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초등부 8팀·중등부 7팀·고등부 13팀·대학부 16팀·성인부 7팀이 참여했다. 초등부 대상은 옥서초등학교 정휘수팀, 중등부는 신정중학교 김서은팀, 고등부는 생활과학고등학교 송지윤팀, 대학부는 춘해보건대학교 박영빈팀, 성인부는 박주용님이 수상했다. 앞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응급처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1회 생존수영 경연대회 성황리에 개최

울산지사는 10월 27일, 울산문수실내수영장에서 울산의 수상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1회 생존수영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대학부 등 총 48명이 참여했다. 울산지사 채종성 회장은 “생존수영은 긴급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울산 학생과 시민들에게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걸으며 나눔도 실천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울산지사는 11월 2일,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제13회 나눔실천 자선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 관내 위기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개최됐으며 참가자들은 태화강 둔치광장을 출발해 십리대밭 일원 5km 코스를 같이 걸었다. 약 1,500명의 참가자들이 태화강 둔치 산책로 환경정화활동도 같이 진행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나눔실천 자선걷기 행사 전후로 비즈공예, 응급처치교육, 이니셜 키링 만들기 등 체험부스와 떡볶이와 샌드위치 등 먹거리 부스가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경기지사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개소

대한적십자사와 광명시가 지속가능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10월 4일 경기지사는 경기지사 이재정 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지부 개소식을 열고 이광수 광명시지부 지부회장 및 운영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기초단체인 시군 단위에 지부가 설치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지사와 광명시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결식가정·소상공인 대상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이에스티 ‘쌔쌔이가 바른기업’ 2000호 가입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쌔쌔이가 바른기업’ 2000호가 탄생했다. ‘쌔쌔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정기적인 나눔 실천으로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지원해 이웃에게 희망을 더하고,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적십자사의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캠페인은 전국 시·도 지역별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에스티의 가입으로 전국 최초 2000호를 달성했다. 주식회사 이에스티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핵심 부품에 대한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 잇는 ‘행복한 두박이들’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제22회 1m 1원 자선걷기대회’가 10월 12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반려견 가족 포함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약 3.5km의 코스를 걸으며 가을의 정취도 느끼고 이웃돕기에 동참했다. 현장에는 심폐소생술 체험, 반려견 상담, 애견 기초 미용, 풍선아트, 타투 스티커, 댕댕이와 인생네컷, 댕댕이 인식표 만들기, 희망 팝콘 등 다양한 체험전과 홍보부스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풍부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강원지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생활키트 포장 실시

강원지사는 9월 24일, 지사 로비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생활키트 포장 작업을 진행했다. 40명의 적십자봉사원들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강원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온(溫)마을 모아 지역사회ON,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매달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선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컵밥, 유산균 등 기타 생활물품을 포장해 보내고 있다.

동물 건강 인식 제고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

강원지사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춘천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된 반려동물 페스티벌에서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증하는 반려동물 인구에 발맞춰 반려인들의 동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기도 막힘 해소 등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구성됐다.

3대가 함께하는 나눔,
명가막국수 아너스기업 가입

강원지사는 9월 30일, 지사 로비에서 주식회사 명가막국수의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가입식을 가졌다. 주식회사 명가막국수는 강원 6호로 아너스기업에 가입했다. 명가막국수는 3대째 적십자를 후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해 온 기업이다. 명가막국수 반정우 대표는 “인도주의라는 가치에 공감하며, 강원지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일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충남지사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열띤 경연

충남지사는 10월 19일 홍성군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충청남도과 충청남도교육청의 후원으로 ‘제59회 충청남도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총 42팀 210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심사위원들은 필기·실기·피드백 장비 점수·팀워크 등 4개 영역을 평가했다. 경연대회에서는 특별상(소방청장상) 호서중학교, 대상(회장상) 천안불당고등학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창립 119주년 기념
충남지사 연차대회

충남지사는 11월 14일 충남도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충남지사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을 기념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적십자 인도주의의 숭고한 의미를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사전 공연, 기념식(포장 및 표창 수여), 힐링 음악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적십자 포장,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2025년 적십자회비
기부 릴레이 탑 제막식 개최

충남지사는 11월 20일 아산 캠프인재개발원에서 2025년도 적십자회비와 특별회비 모금을 위한 ‘2025년 적십자회비 기부 릴레이 탑’ 제막식을 가졌다. 행사는 기부 릴레이 탑 제막, 특별회비 전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15개 시·군의 적십자봉사원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김태홍 충남도지사를 시작으로,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 이흥구 부회장, 김학수 전(前) 부회장, 봉사회 충남협의회 등이 함께하며 기부 릴레이 탑에 희망을 더했다.

충북지사

봉사원 45명,
명예의 전당에 헌액

충북지사는 10월 29일 지역사회를 위해 1만 시간 이상 헌신한 적십자봉사원 총 45명을 봉사원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봉사원 명예의 전당은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의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활동 등에 헌신한 적십자봉사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청주 중앙봉사회 소속 이인수 봉사원과 염재숙 봉사원은 각각 2만 5,366시간과 2만 4,977시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했다.

충북 RCY
‘사랑가득 연탄나눔 봉사’ 펼쳐

충북 RCY는 11월 2일 충북지역 내에서 ‘사랑가득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총 460여 명의 RCY 단원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이번 ‘사랑가득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청주시를 포함한 충주·제천·음성·진천·보은 등 6개의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RCY 단원들은 취약계층 39가구에 총 연탄 1만 1,000장을 전달하며, 이웃들과 온기를 나눴다.

저소득층 학생 위한
건강 활동 꾸러미 지원

충북지사는 11월 19일 SK하이닉스의 지원으로 충북교육청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 활동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충북지사 장현봉 회장,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SK하이닉스 이일우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꾸러미는 티셔츠, 폼롤러, 요가 매트, 푸시업바, 손목보호대 등 총 5,000만 원 상당의 지원 물품으로 구성되었다. 제작된 꾸러미는 도내 저소득층 학생 440명에게 전달됐다.

전북지사

전북도민, 힘내세요!
취약계층에게 물품 지원

한정수 전북도의회원이 9월 2일, 희망풍차 결연세대 1,000가구를 대상으로 백미와 홍삼세트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이번 물품은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1억 원으로 마련됐다. 또한 한정수 전북도의회원은 적십자봉사원과 함께 왕궁면 내 희망풍차 결연세대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연일 35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농촌사랑상품권 전달

전북지사는 완주군청, 익산시청, 군산시청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 672가구를 대상으로 농촌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해당 상품권은 ㈜하림,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 아이돌그룹 ‘(여자)아이들’, 전북개발공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이재민 생필품, 취약계층 일상 회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경기지사 이선홍 회장은 “이재민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줘서 큰 힘이 됐다”라고 전했다.

우리는 생명 지킴이
‘응급처치경연대회’서 활약

전북지사는 11월 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응급처치 보급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제59회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총 91개 팀, 5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참가했으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삼각건과 붕대를 이용한 상처 처치 분야에서 열띤 실기 경연을 펼쳤다. 이선홍 회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의식 확산에 큰 기여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광주·전남지사

추석맞이
따뜻한 사랑의 장보기 행사 진행

광주·전남지사는 9월 12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따뜻한 사랑의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우리 지역의 돌봄 이웃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사회협력기관 임직원, 적십자봉사원과 일부 수혜자들이 함께 온누리 상품권으로 명절 음식과 생필품 등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입해 광주지역 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했다.

광주나눔터 리모델링 착공 및
아너스클럽 가입

광주·전남지사는 10월 8일 광주적십자나눔터에서 연말 무료급식소 개소를 위한 리모델링 착공식과 SRB미디어그룹 조덕선 회장의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가입식을 함께 진행했다. 무료급식소에서는 주 2회 적십자봉사원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한 끼 식사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SRB미디어그룹 조덕선 회장은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광주·전남 21호로 가입했다. 그는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응급처치 보급 확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경연’ 성료

광주·전남지사는 10월 26일 2024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응급처치 보급 확대를 통한 시민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총 76팀 304명이 참여했으며, 적십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4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종합응급처치(삼각건 및 골절 처치) 종목으로 경연을 펼쳤다.

경남지사

에스엠에이치(주),
아너스기업 경남22호 등재

에스엠에이치(주)가 11월 12일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경남 22호로 등재됐다. 이번 가입식은 경남지사의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 연차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에스엠에이치(주)는 2007년 7월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해양플랜트 사업 부문의 운반 하역설비 사업을 승계해 설립된 회사이다. 대학교 발전기금 기탁 및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교복 지원, 보호대상아동 첫 살림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적십자 기빙클럽 캠페인에 6년째 동참하는 등 정기후원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산불 재난 대비한
재난구호 종합훈련 시행

경남지사는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 재난에 대비해 10월 24일 재난구호종합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봉사원 146명, 직원 27명, 소방대원 6명, 유관기관 16명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소집된 적십자 직원과 봉사원들은 임시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용 쉼터 설치, 구호물자 배분 및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 신속한 재난구호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유관기관 연계 협업 훈련을 통해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RCY라는 자부심’
대학RCY 합동입단선서식 개최

청소년적십자(RCY)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대학RCY 합동입단선서식이 9월 29일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문성대학교 윤순철 지도교수를 비롯해 가야대, 경남대, 김해대, 마산대, 창원대, 창원문성대, 한국폴리텍대학 등 8개 대학RCY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합동입단선서식을 통해 신입 회원들은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으로 활발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2부 RCY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부스 등 RCY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친선과 교류, 화합의 장이 열렸다.

경북지사

안동시치매안심센터와
취약계층 대상 치매 검사 실시

경북지사는 9월 25일 안동나눔터에서 안동시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취약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했다. 또 의료체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방문자를 중심으로 치매 검사와 혈당검사를 실시했다. 경북지사 김재왕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치매, 노인 돌봄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령화 시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축제 현장에서
시민 대상 응급처치 홍보

경북지사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10월 5일 열린 ‘안동 낙동강 힐링로드’ 행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재난 안전 체험부스, 지역 주민 대상 심리회복지원 상담, 정기후원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함께 홍보했다. 김재왕 회장은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및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홍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덕의료재단 후원, 호우피해
이재민·취약계층 지원

경북지사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의 기부금 후원을 통해 안동시 집중호우 수해 이재민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총 120가구를 지원했다. 인덕의료재단 이윤환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금과 함께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인덕의료재단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지사

적십자회비 모금 선포식 열어
‘43억 원’ 목표

제주지사는 11월 29일 ‘적십자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은 내외빈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금함 제막식, 특별성금 전달, 대형 모금함 기부, 슬로건 만들기,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지사는 2025년 모금 목표로 집중모금 9억 1,000만 원, 정기후원금 19억 4,000만 원, 사회협력 기부금품 14억 6,000만 원 총 43억 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 위한 머리 맞대

제주지사는 11월 7일 제주현대호텔에서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 재난 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방재협회 방기성 회장이 ‘재난관리 정책의 최신 동향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적십자사의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제주연구원 박창열 책임연구원이 ‘제주지역 재난 재해 전망 및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재난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에 대한 쟁점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패러다임에 관해 토론했다.

금성호 선박 침몰 사고
구호활동 전개

제주도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11월 8일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에 제주지사는 사고 직후 적십자봉사원들을 현장에 파견했다. 봉사원들은 선원과 유가족, 실종자 가족, 실종자 구조요원을 위한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 상담가 총 7명을 파견해 심리회복지원차량 및 재난심리상담부스를 운영했으며, 선원 대상 심리상담 실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외국인 구조선원 이동, 실종자 가족 어선 침몰 해역 답사 등)을 진행했다. 또 수색인력을 위한 구호급식을 제공했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누적 모금 총액(2023. 12. 1. ~ 2024. 11. 30.)

적십자회비 40,809,553천 원

정기후원 51,932,299천 원

프로그램 후원 내역(2024. 9. 1. ~ 2024. 11. 30.)

사회공헌협약 체결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경기도광역시매센터 경인여자대학교 나사렛국제병원 베트남적십자사호치민시지사 서산vip주니어센터 송산농업협동조합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충남세종가족센터협회 카카오모빌리티 크리에이티브(주)

사회협력 기부금품 내역

1억 원 이상 (주)빙그레 (주)씨제이이엔엠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일우재단

5,000만 원 이상 (재)성주재단 (주)명륜당 HD현대인프라코어(주)김장연 삼화페인트공업(주)이명희 재단법인남춘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허정

1,000만 원 이상 (재)경원문화재단 (주)미디어윌 (주)시그마네트웍스 (주)엘지유플러스 (주)영원무역 (주)영원아웃더어 LG유플러스천원의사람(임직원) 건설공제조합 김선헌 김영혜 김윤철(서광산업) 김효봉 농업회사법인제주축산개발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주)민선식 삼성물산(주)패션부문 서봉균 서창희 에이케이홀딩스(주)엔프라니주식회사 재단법인임당장학문화재단 정지선 정혜신 제이더블유흥딩스주식회사 주식회사엘엑스컴퍼니 주식회사올데이프레쉬 주식회사가카오모빌리티 주식회사팔도 중국건설은행서울지점 코오롱인더스트리(주)FnC부문 한건복지재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 한람플러스재활의학과의원 효성중공업(주)

500만 원 이상 (주)네오에이인터내셔널 (주)카카오 고용노동부 김희영 농협은행주식회사 법무부 삼진제약(주)수협은행 신한은행본점 우리은행 이성용 주식회사코스모엔컴퍼니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강원지역본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행정안전부

100만 원 이상 (재)예수병원유지재단 (주)국민은행 (주)우성씨엔에이 (주)한국(ZEN) (주)지에스리테일홈쇼핑 (주)진현엘빙 C&U기술사사무소 MJ티파니 강상필 고기복 고려당 고상구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악농업협동조합 구암골사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분좋은한방병원 김강열 김건용 김동욱 김병호 김성조 김승수 김아정 김인규 김정예 김철수 김태윤 김행 김행일 나주리 남진선 더행복나눔장애인보호작업장 박경삼 박경희 박영택 박정수 박종길 사단법인세계문화협회 설명회부띠끄마리에블랑 소재선 소정임 송동훈 신민식 안준희 엄윤경 엄윤섭 유석찬 유주완 유혜진 윤민영 이강욱 이석주 이은서 이재동 이재홍 이정화 이주호 이창욱 이현미 임영욱 장동석1 장동석2 정서영 정용민 정현우 조미령 조아네스 조영철 조의영 주식회사공간과사람 주식회사샤스팜 주식회사서울숲주류연구소 주식회사세라진 주식회사형원이엔지 중소기업은행 채동완 최영재 최은진 최재현 최준 최진녕 커피스미스에프씨(주)코오롱티슈진엘앤비 크레아티오유휘회사 학림공업(주)한국무역보험공사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파렛트폴(주)한성기업(주)강남영업소 한세엠케이주식회사 한원군 한전케이디엔(주)한조정 허수정 홍소자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현황(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가나다순(2024년 11월 30일 기준, 익명 기부자 8명, 중복 1명 포함 총 278명)

故정요한 강난파 강석중 강신애 강신혁 강영신 강영의 강옥채 강원선 강은희 강중구 강태선 고광만 고진호 공봉애 광경부 광희순 구분무 구정희 구한조 권오록 권혁홍 김경배 김경조 김경희 김교숙 김남근 김남희 김대곤 김대환 김동욱 김무임 김문자 김미량 김민호 김범수 김병관 김병숙 김봉옥 김상열 김상태 김상호 김석주 김선헌 김선호 김성주 김수관 김애란 김영식 김영자 김영현 김영혜 김영화 김영희 김우준 김윤희 김윤철 김은용 김은재 김익기 김인순 김일량 김자경 김재봉 김정규 김정수 김종기 김진태 김창남 김철 김철수 김철용 김청옥 김초원 김태연 김태영 김택남 김한 김한성 김형일 김홍국 김홍수 김홍식 김효봉 김휘성 김희월 김희철 남성희 남종현 도경희 류시문 문명재 문은수 문진석 민경용 박명수 박병선 박순단 박승현 박연자 박윤미 박장배 박재규(2회 가입) 박재연 박재천 박재홍 박주환 박종근 박종태 박준영 박해진 박홍석 박희순 백낙서 백낙환 백인계 변순자 변정섭 서봉균 서봉숙 서의수 서정의 서창희 석승한 성점화 손덕임 손창우 송광자 송경자 송금순 송길자 송옥희 송재승 송준기 신동삼 신성민 신수봉 신숙경 신용구 신정택 신현국 신현봉 안응수 안재욱 안준엽 양문자 양인준 양창홍 오길순 오복진 오연서 오현봉 우현희 유봉기 유종근 유진중 윤금영 윤미선 윤병철 윤신일 윤옥자 이강운 이강원 이경호 이도희 이동건 이명희 이병현 이상락 이상록 이서례 이선진 이선홍 이성구 이상용 이세웅 이수만 이승기 이승연 이승영 이승운 이언구 이영진 이영철 이영혜 이용찬 이유순 이재남 이정훈 이종욱 이주영 이준근 이종호 이태호 이현진 이현태 이혜원 이희방 임경하 임복희 임순이 임은영 임형주 장대식 장대우 장성훈 장세욱 장영희 장예순 장오환 정진아 전범수 전병순 전종욱 전중희 정규진 정기호 정민혜 정석관 정석현 정성우 정영화 정영진 정용 정지선 정찬물 정채영 조덕선 조의영 조정에 조현숙 주경숙 채종성 최광주 최상준 최신녕 최영수 최영아 최윤희 최유승 최창걸 최종원 최해상 한광원 한영수 한일량 한재승 한재현 한주식 허규현 허관규 허용수 허인영 허정 현종협 홍경순 홍라희 홍성열 홍은영 홍종욱 홍태희 황광자 황규철 황세열 황인성 황종현 황찬규

특별회비(2024. 9. 1. ~ 2024. 11. 30.)

본사

100만 원 이상 원홍화

서울지사

500만 원 이상 한화커넥트(주)

100만 원 이상 김철수 송계생 오재갑

부산지사

1,000만 원 이상 부산청과(주)화성금속공업(주)

500만 원 이상 (주)신태원종합건설 (주)제이에이치라이팅 (주)지맥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100만 원 이상 (주)화신종합운수 뉴하룬공인중개사(봉사원송미옥) 동해강업(주)부산시협의회 양정2동봉사회

대구지사

1,000만 원 이상 박수영

500만 원 이상 김석주 대성에너지(주)장민호팬클럽대경민트

100만 원 이상 KK주식회사 경북지방우정청우체국FC사랑나눔봉사단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지방국세청 데레사신헌 신인철 이동현한의원 이연주 조민규 조영석 주식회사서울고시각 주식회사진성홀딩스 중앙식품 침산중학교 평화씨엠비(주)한명아 한화시스템(주)

인천지사

5,000만 원 이상 장오환(대하레스셀대표/본사RCHC)

1,000만 원 이상 (주)세계전람 주식회사우딘 태양

500만 원 이상 HD현대인프라코어

100만 원 이상 계산3동주민자치회 인천광역시여성외과광장 인천시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주식회사메세이상

울산지사

1,000만 원 이상 사회복지법인에쓰오일울산복지재단

100만 원 이상 김현아 신정미 신정한마음회 안성일 오정철기감 울산병원 울산세무서&울산지역세무사회 울산중부경찰서경찰발전협의회 이금조 적십자봉사회를주군지구협의회 주식회사대한티앤에스 전문구

대전·세종지사

100만 원 이상 국립한밭대학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세아제지(주)이영인 이홍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경기지사

1,000만 원 이상 주식회사메세이상

강원지사

100만 원 이상 나눔봉사회 대한국제법학회 류석환 재단법인송상현국제정의평화재단 정채영 한국주택도시공사강원지역본부

충북지사

100만 원 이상 대한주택건설협회 메타바이오메드 충북경제포럼

충남지사

100만 원 이상 송산농협

전북지사

1,000만 원 이상 (주)국민종합주택관리

100만 원 이상 OCI주식회사 (주)삼성경제연구소인력개발 재단법인국민연금나눔재단 재단법인하나금융나눔재단 전주농업협동조합

광주·전남지사

1,000만 원 이상 (주)남부홀딩스 (주)영무건설 조덕선

500만 원 이상 (주)기아 (주)이화건설

100만 원 이상 (주)에스이 (주)지에이건설 광선회 광주광역시육외광고협회북구지부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 광주전남지사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광주환경공단 국연숙 김경한 바르게살기운동경상남도협의회 성화지하수개발 양용승 전라남도교육청 피앤케이홀딩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지사

1,000만 원 이상 (주)한석시스템 경상북도개발공사

500만 원 이상 (주)세아제강

100만 원 이상 (사)경상북도의사회 감미인영농조합법인 김정필

경남지사

1억 원 이상 사회복지법인한아음극제복지재단

1,000만 원 이상 (사)동원유지 유수연 유진중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발전본부

500만 원 이상 (주)창원중장비에이엠센터 (주)합일셀레나 삼이오산업(주)

100만 원 이상 (주)부경 (주)삼녹 경남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김경희 김귀덕 김동석 김상호 김행진 대한방사선협회경상남도회 마산청과시장(주)미촌농장 민윤애 박유선 박희순 백운옥 세광축산 시립마산요양병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안금주 에스펙(주)이원정밀 인텍 임양순 적십자봉사회의령지구협의회 주식회사승산정밀 주안플래닛(주)함양지구협의회

제주지사

1,000만 원 이상 (주)제주사랑렌트카 이승윤

500만 원 이상 강영중

100만 원 이상 김정순 변숙경 손영주 임진혁 정운숙 제주렌터카조합 한림적십자봉사회



신규 후원 회원 현황



대한적십자사 후원 프로그램

- 신규로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QR코드를 통해 자신에 맞는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

온/라/인으로 RedCross 만나기

종이 소식을 온라인 소식지로 만나보세요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적십자 콜센터



1577-8179 (유료)

QR 코드



온라인 소식지 신청

01

<RedCross> 웹진으로 보기!

<RedCross> 소식지가 웹진으로도 발행됩니다. 소식지를 웹진으로 구독하는 경우 연간 제작비와 발송비가 절감되어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02

회원정보 최신화하기!!

적십자의 현장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회원정보를 최신화해주세요. 우편물 반송이 줄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03

대표 주소지 선정!!!

같은 주소로 여러 권의 소식을 받으시나요? 한 주소당 한 권의 소식을 받아보며 더 많은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RedCross>는 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2024년 <RedCross> 겨울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RedCross>와 언제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dCross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2024년 RedCross 가을호 독자 의견

김은경 경기도 하남시

대한적십자사의 신규 캐릭터 세호 소개 기사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나비 효과가 전파하는 긍정의 힘을 믿으며 탄생하게 됐다는 배경 설명을 들으니 세호의 밝은 이미지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적십자의 다양한 활동에서 만나게 될 세호의 모습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줄지 활약이 기대되네요.

이지훈 부산시 해운대구

<후원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를 통해 적십자 교육·연구 사업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구호활동, 혈액사업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지는 몰랐네요. 적십자가 우리 사회에 안전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들을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안전 교육은 잘 이뤄지고 있는데 문득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유광열 대전시 중구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를 <RedCross>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차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나진료센터는 자원봉사자 기업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모두의 기댈 곳이 되어주는 이곳이야말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박현식 경기도 광명시

혈액암을 앓고 있는 별이의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조차 별이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네요. 부모된 입장에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그런 별이를 위해 아픈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옆에서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모습도 안타까웠어요. 온정의 손길들이 모아져서, 별이네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정종연 전라북도 전주시

대한적십자사 정일우, 김다현 홍보대사의 나눔 활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시작한 제 후원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겠지요? 용기를 낸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임은선 서울시 성북구

김경일 교수님의 '당신의 불안을 힘으로 바꾸는 법'을 읽고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응원과 용기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적십자에 후원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며 주저했는데 소식을 통해 나눔과 기부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볼 때마다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정말 나눌수록 더 커지네요.

대한적십자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눔에 앞장선 여러분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이메일(webmaster@redcross.or.kr)로 보내주세요.

※ 소식지 담당 직원이 발송 명단을 정리하면서 같은 주소지로 입력된 분들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개별 발송이 필요한 분께선 02-3705-375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적십자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



홍보대사 정동원, 장민호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5-346162-13-064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응급구호세트
Emergency Relief Kit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대한적십자사**